

정두언 “지금은 호남 편중지원 필요”

“표결하든 철회하든 세종시 논의 빨리 진행해야”



를 본 일이 있느냐. 수정안은 원안이 균형발전이 안 되니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혁신도시·기업도시는 물론 다른 현안 사업 모두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히 “혁신도시의 경우 사업 속도가 나고 인센티브도 확대되는 등 오히려 세종시 혜택을 보고 있다”며 “혁신도시 사업을 가속화하는 정부 기구나 회의체를 만들어 이를 독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갈등에 대해 정 의원은 “같은 당이라고 하기에 선을 넘어섰으며 위기 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거기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정치”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에 대해서는 역차별해야 영남 편중이 없어진다”

광주 출신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10일 “최근 주변에서 호남 출신들이 인사에서 소외되고 비즈니스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영·호남 세력과 경제력이 2대 1인데 이에 기초해서 그대로 투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며 “따라서 세가 약한 호남에 ‘2’를 쥐어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정 의원은 “상식에서 생각하면 된다”며 “빨리 논의를 진행시켜 표결로 결판을 내든지, 철회할 것이라면 빨리 철회하는 것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친박에서는 논의조차 못하게 한다. 한나라당 주류 내에서도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논의를 지체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설이 지나면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박의 반대로 수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고 안 되면 마는 거다”라며 “잘된 것 같은 일이 오히려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것 같은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흡수를 부러서는 안 된다”고 “순리”와 “상식”을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세종시 수정안의 진정성을 알게 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내용을 보고 듣지도 않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호남지역 등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포항과 광양에 포스코가 갔다고 다른 지역에 피해

野5당, ‘반MB 선거연합’ 원칙적 합의

설 이후 공동협상기구 발족... 4월 연합공천 마무리

수도권·호남 광역단체장 경선 영향 미칠지 촉각

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 협상기구 발족에 합의하는 등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권의 선거연합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활동 의혹을 둘러싼 민주노동당 수사를 계기로 야권이 야당 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을 선언하면서 결속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6월 지방선거에서 반(反)한나라당 대연합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 실무 협상단은 10일 국회에서 “현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합해 공동대응을 추진키로 했다”며 중간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서에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극복하고 일자리, 교육, 복지, 환경, 평화 등 정치 및 정책의제에서 미래지향적인 공통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합의 핵심”이라며 “복지와 교육 체계의 획기적 개조, 비정규직법 개정, 통상정책 등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연합을 위해 호혜중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역단체장 후보를 포함, 후보 확정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겼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호남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놓고 야권이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야권의 선거 연합 논의는 치

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민주당 경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각 예비 후보 진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 5당은 일단,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설 연휴 직후 공동협상기구를 발족, 4월 중순까지 연합공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공동 지방정부 구성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동협상기구를 각각 대표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반(反)MB 선거연합’ 국민운동체 형태로 발족하고 그 산하에 정책연합, 공동지방정부, 연합공천 등 세부협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파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 안팎에선 본선 경쟁력 등을 들어 “수도권과 호남에서 양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서는 호남과 수도권 선거를 양보하는 대신, 후보단일화를 통한 정책 및 공약 등에 대한 합의를 지렛대 사야 선거연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은 야5당이 공식협의기구를 발족, 선거연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의미있는 논의의 결과가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박광태 “시책에 글로벌 경쟁력 담아야”

박광태 광주시장이 10일 시장실에서 열린 ‘2단계 1등 광주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보고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입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지난 1995년도에 처음 입안한 1단계 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시책을 펼친 결과 광주는 첨단산업도시, 문화수도, 국제도시, 선진복지도시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박준영 세종시 불가론 재강조

박준영 전남지사는 10일 담양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정책이 바뀌면 안된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안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고 지금까지 이를 공개석상에서 일관되게 말해 왔다”고 설명했다.



양형일 “4인 선거구 유지해야”

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0일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현행 4인 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중앙위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그는 “다수당이 독점한 의회에서는 견제와 균형 위해 부여된 감시권이 약화돼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행정 수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갑길 선거 전략 책 펴내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1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수립, 조직구성, 홍보기법 등 전략과 전술을 담은 책(좋은 선거 좋은 인물)을 발간했다.

한편, 전 청장은 오는 19일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25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장원섭 광주시장 출마

장원섭 전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10일 “민주당 독점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력을 되찾아 시민참여형 도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며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주인되는 광주, 지역자립경제시스템 광주, 좋은 일자리·복지·교육·문화 광주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임흥채 동구청장 출마

임흥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은 10일 “신도심과 구도심, 신세대와 구세대가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구현해 역동적인 동구를 만들고 ‘광주 분가 재건’을 실현하겠다”며 광주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선옥 서구청장 출마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은 지난 9일 “여성 지방자치 참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며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여성특보를 지냈던 김 전 의원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서구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필수·최권일·김계중·윤현석기자 cki@kwangju.co.kr

정재훈 남구청장 출마

정재훈 광주 동아병원장은 10일 “주민 봉사정신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광주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남구에서 15년간 동아병원 경영 혁신을 즐기자게 전개한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에서 느낀 소신을 바탕으로 재정자립도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석 곡성군수 무소속 출마

허남석 전 곡성경찰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으로 곡성군수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곡성군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만들겠다”며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관광 인프라확충 ▲참여의 행정 구현 등을 약속했다.



최영호씨 등 10명 민주 복당

민주당은 10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18대 총선과정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는 등의 이유로 정계에서 제외된 최영호 전 광주시의원과 이윤자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 김병내 강연태 의원 보좌관, 서형진, 방정환, 안원근, 정재수, 박석순, 신홍삼, 양영복씨 등 광주·전남인사 10명의 복당을 의결했다.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월 9일 고모이 3월 2일 시작반

9월 9일 9급 문재풀이

1등은 이유가 있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9급 야간반 개설 **한빛고시학원 최근 3년간 합격자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소방직**

마김유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 234-0234